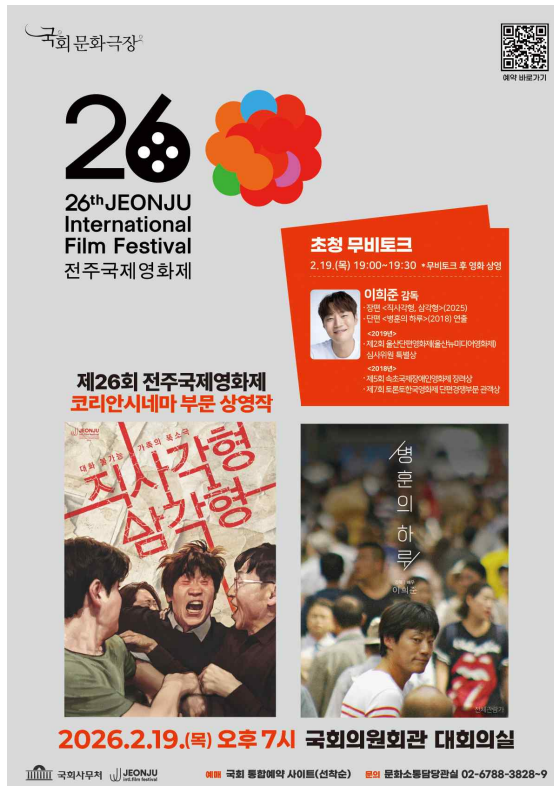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JEONJU IFF
배포일	2026. 2. 5.	보도 요청일	2026. 2. 5.	
담 당	홍보미디어팀	취재 문의	1899-5433 (홍보미디어팀: 4번) publicity@jeonjufest.kr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국회문화극장 통해 국민과 만나는 영화의 시간

- <직사각형, 삼각형>, <병훈의 하루> 상영 및 이희준 감독 무비토크 진행
- 영화 상영과 무비토크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국회문화극장 프로그램을 3년 연속 이어간다고 밝혔다.



국회문화극장

26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전주국제영화제

초청 무비토크
2.19 (목) 19:00~19:30 *무비토크 후 영화 상영

이희준 감독
장편 <직사각형, 삼각형>(2025)
단편 <병훈의 하루>(2018) 연출
<2019년 제2회 전주국제영화제> 최우수감독상 수상
<2018년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 최우수감독상 수상
<제2회 전주국제영화제> 최우수감독상 수상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부문 상영작

직사각형 삼각형

병훈의 하루

2026.2.19.(목)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국회사무처 JEONJU 27th Film Festival

주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월 국회문화극장 포스터

국회문화극장은 문화를 매개로 국민과의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사무처가 주최하는 문화 행사로,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영화와 공연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선보이고 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2024년을 시작으로 국회문화극장과 3년째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문화적 상호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국회문화극장 콘텐츠의 다양화와 독립·예술영화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추진해 왔다. 전주국제영화제 수상작과 상영작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감독과 배우를 초청한 무비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회문화극장을 풍성하게 선보여왔다.

지금까지 국회문화극장에서 선보인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으로는 2024년 2월 <비밀의 언덕>을 시작으로 <윤시내가 사라졌다>, <안녕하세요>, <결혼, 하겠나>, <담요를 입은 사람> 등 다양한 작품을 상영했으며, 2025년 <룸 셰어링>, <겨울의 빛>, <만남의 집> 등을 통해 꾸준히 관객과의 만남을 이어왔다.

전주국제영화제는 2월을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국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첫 상영작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 상영작 <직사각형, 삼각형>과 특별상영 섹션의 <병훈의 하루>다. 두 작품은 2월 19일(목) 19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상영되며, 상영에 앞서 두 작품의 연출을 맡은 이희준 감독과의 무비토크가 마련돼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예매는 2월 5일(목)부터 대한민국 국회 통합예약 사이트(<https://reservation.assembly.go.kr/>)에서 진행된다.

한편,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4월 29일(수)부터 5월 8일(금)까지 10일간 영화의 거리 및 전주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2025년 국회문화극장 <겨울의 빛> 무비토크 사진